

늦게 온 자의 기억

윤여일 / 작가

바깥에서, 한참이 지나 이들은 왔다. 이들은 이 섬의 얼굴을 그린다. 결국 그린 것은 이 섬의 기억, 이 섬이 잃어가고 있는 기억이다. 바깥에서 온 이들은, 70년 전 이 섬에서 일어난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이들은, 기억을 그려내며 기억의 당사자가 되고자 한다. 기억은 비록 뒤늦더라도 기억을 찾아다니는 이들에게 적기로 찾아와준다.

그림보다 먼저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렸다. 사진이 순간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데도 굳이 시간을 들여 다시 그렸다. 그 까닭은 그려내고자 했던 것이 기억이기 때문이리라. 속히 작품을 만들기보다 완성의 시간을 유예시키며 사진 속 모습과 교감한다. 그동안 사진 속 모습은 서서히 그림의 장면이 된다. 면으로 펼쳐지고 장으로 일어선다. 그림에는 타인의 사연과 함께 그리고 있는 자신의 기억이 깃든다.

풍경과 얼굴. 먼저 풍경부터 말하자. 박종호는 처음 와본 제주에서 지내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여기저기를 다녔다. 그 생활이 길어지며 자신이 아름답다고 여겼던 그곳들이 누군가의 망막에는 생의 마지막으로 비쳤을 풍경임을 알게 된다. 그곳들 어딘가는 학살터였다. 또한 산천 어딘가는 ‘잃어버린 마을’이었다. 역사의 곡절을 알게 되자 풍경이 말을 걸어온다. 그에게 그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이제 황량함, 으스스함, 두려움을 갖는다. 그는 그 깊이감을 흑백으로 담아냈다. 흑백은 빛과 어둠의 색이다. 기억의 원상에 가까운 색이다. 그 흑과 백의 색감은 목탄의 힘을 빌리고 있다. 나무의 재는 누군가의 망막에 비쳤을 마지막 모습을 흔적으로 남기고 있다.

이쪽에는 얼굴이 있다. 박선영은 이 얼굴의 주인공들을 옛날사진관에서 만났다. 4·3 70주년을 맞아 7일 간의 큰곳에 방문한 희생자 유족들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사진 속 얼굴을 그림으로 옮겨내기로 마음먹는다. 그리는 동안 그들과 만났던 경험을 다시 경험한다. 한 사람을 그린다. 그에게서 느꼈던 톤을 떠올린다. 그 구체적 존재에게서 짧게나마 들었던 이야기를 상기하고 가능했었는지 모를 대화를 상상한다. 그것들이 붓칠로 거듭된다. 그렇게 ‘살아진다’와 ‘살아내다’라는 버거운 피동과 그만큼 절절한 능동이 겹쳐진 얼굴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수채화다. 물은 마르기 전까지 캔버스 위를 떠다니며, 착상(着狀)에 이르기까지 착상(着想)은 이어진다. 그 얼굴을 그려내는 동안 작가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여기 흑백의 풍경과 배색의 얼굴이 있다. 재의 덧칠과 물의 번짐이 있다. 이 공간에서 그것들이 조우하고 있다. 어느 쪽도 윤곽선이 명료하지 않다. 기억은 어스름하게 움직이나 보다. 이들은 그러한 기억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들은 사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그렸다. 그리고 나는 작품에서 형성중인 이들의 기억을 본다.

잃어버린 마을. 왜 ‘사라진 마을’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을’일까. 그 표현은 사라졌다는 사실을 지시할 뿐 아니라 상실을 간직하고 있다. 이 상실감의 지속이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서 존재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고 만 지금, 이 섬은 잃어버림을 잃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렸다는 기억이 망각 속으로 가라앉고, 잃어버렸다는 상실을 간직한 자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고 있다. 섬은 상실을 아는, 자신의 얼굴을 잃어가고 있다.

두 작가는 이 섬이 잃어가는 기억을 그렸다. 그렇더라도 두 작가가 잃어가는 풍경, 잃어가는 얼굴을 보존할 수는 없다. 두 작가의 작업은 잃어가는 과거에 대한 재현일 수 없다. 잃어가고 있음을 대하는 현재 사념의 표출이다. 두 작가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자신들의 기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잃어가는 과거와 현재의 정동 사이에서 기억은 새롭게 형성되고 가득 충전될 것이다. 새로운 기억은 그 기억을 대하는 타인에게도 손을 뻗을 것이다.